



중소기업 지원용 2천800억원 규모 ABS 발행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중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천8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된다. ABS는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으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중소기업청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기업신용등급이 B- 이상인 중소기업 50여개사를 모집해 1천5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경에는 2차로 1천3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과정은 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주간사인 우리투자 증권을 통해 인수한 뒤, 이를 담보로 ABS를 자산의 수익배당권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발행물량의 70%), 중순위(12%), 후순위(18%)로 구분해 6월까지 발행하게 된다. 선순위 채권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순위 채권은 지원 대상업체 및 우리는 행 사모펀드에 매각되며 후순위 채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게 된다.

ABS를 통해 마련된 지원자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기업의 분식회계 여부, 대주주의 자금유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계획서상 용도 외 자금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순위채권 인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2%로 낮추고 기업설명회, 경영컨설팅 지원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정한 기업신용 등급에 따라 BBB-이상은 70억원, BB+~BB- 50억원, B+ 이하 40억원으로 정했다.

수급펀드, 7월말 1차 1,500억 지원

대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중소기업의 장비 및 부품 소재를 관련 대기업이 구매해주는 상생협력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수급기업투자펀드(수급펀드)가 7월 중 조성돼 자금이 본격 집행된다. 산업자원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올해 자동차와 조선 등 9개 업종으로 확대된 수급펀드의 주관 증권사가 이달 중순 선정되고, 6월과 7월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업체 선정을 거쳐 1차로 1천500억원이 7월말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또 정부는 오는 9~11월말경 2차 수급펀드 조성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1조원 수준까지 수급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부, 해외 R&D센터 유치시 20억 지원

과학기술부는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유치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에게는 2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한다.

과기부는 홈페이지(www.most.go.kr)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홈페이지(www.kicos.or.kr)를 통해 시범사업에 관한 공고를 내고 5월 20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접수해 다음달 초 시범사업을 선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이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SOI), 질병관리본부 결핵센터가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한양대가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추진중이다.

이 시범사업은 해외 연구기관이 국내에 투자한 만큼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한 국내 연구기관에 대해 정부가 3년간 1억원에서 최대 6, 7억원까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부는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해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R&D에 7천342억 지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5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7천342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한다. 이 지원규모는 지난해 지원실적인 6천624원에 비해 718억원(10.8%)이 증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지원사업' 규모가 550억원으로 지난해(543억원)에 이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9개) 및 정부투자기관(6개) 등 15개 기관이 R&D 예산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이다.

창투사 공시제도 6~7월 시험 운영

중소기업창업투자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 일반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6~7월 시험 운영된다.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창투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기간 정부출자를 제한받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소기업청은 9일 열린 '창업지원법 및 벤처특별법 등 설명회'에서 창투사 공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창투사는 조직 및 인력, 재무현황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공시를 해야 하며 불법행위, 대표 및 주요주주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또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자율공시를 할 수 있다.

창투사가 업무상황을 자체적으로 중기청에 보고하면, 벤처캐피털협회는 자료를 확인한 후 협회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그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올 2월 벤처캐피털협회와 공시 시스템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회는 동부정보와 함께 전자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기청은 5월 중 창투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공시기준을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6~7월 중 공시제도를 시험 운영한 뒤 보완 과정을 거쳐 8월에 각 창투사의 공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용 2천800억원 규모 ABS 발행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중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천8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된다. ABS는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으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중소기업청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기업신용등급이 B- 이상인 중소기업 50여개사를 모집해 1천5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경에는 2차로 1천3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과정은 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인수한 뒤, 이를 담보로 ABS를 자산의 수익배당권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발행물량의 70%), 중순위(12%), 후순위(18%)로 구분해 6월까지 발행하게 된다. 선순위 채권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순위 채권은 지원 대상업체 및 우리은행 사모펀드에 매각되며 후순위 채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게 된다.

ABS를 통해 마련된 지원자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 대주주의 자금유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계획서상 용도 외 자금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순위채권 인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2%로 낮추고 기업설명회, 경영컨설팅 지원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정한 기업신용 등급에 따라 BBB-이상은 70억원, BB+~BB- 50억원, B+ 이하 40억원으로 정했다.

중기청, 생산공정 개선에 37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48개 업체에 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1억원 한도내에서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에 드는 비용의 50%와 공정혁신 실행에 드는 75%까지 지원받는다.

중기청은 신공정을 도입하고 공정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63개업체에 58억원을 지원해 업체당 평균 269%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기술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특허기술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특허청과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특허를 담보로 한 사업화 자금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 담보 없이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국내 최초의 기술 기반 대출제도로 지원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로 그간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현물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웠던 중소·벤처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외부전극형 방전관의 제조장치' 특허를 보유한 램프 제조업체인 플라즈마램프에 5억원을 대출했으며 3개 회사에 대해서도 특허 담보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의 가치심사는 산업은행 내 산업기술부에서 맡고 특허청은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대출 지원제도

국가 경제적으로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 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을 위해 수입대금의 결제(수입 유전스 L/C 결제 포함) 또는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업체 앞으로 금융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기업_지원대상품목을 수입하는 모든 국내수입업체

》지원대상 품목_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시설재와 첨단제품으로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아래 품목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연, 알루미늄 등 관련자원 및 반제품
- 스테인레스강, 기타 합금강, 비합금강 및 관련 반제품
- 석탄, 원유,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핵연료, 나프타
- 생고무, 원목, 펄프, 원당 등
- 주요자원 개발 수입거래

《시설재, 첨단제품》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 해당품목(홈페이지 참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규칙 해당품목(홈페이지 참조)
- 첨단제품_산업자원부 고시 2002-24호(2002.3.2)상의 첨단 제품(전자·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 기기, 정밀 기계, 광학 기기, 항공 수송 기기, 관련 부품 및 소재, 신물질 등) 홈페이지 참조

》대출기간

주요자원 및 상품_2년 이내 (주요자원의 경우, 통상 1년)
기계류 등 시설재, 첨단제품수입거래, 개발수입거래 : 10년 이내

》대출금액_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금금액의 80% 범위 내, 단 중소기업은 90% 범위 내

》대출통화_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리(우대 금리)

원화대출_기준금리 + 가산율
외화대출_(고정금리) Swap Rate + 가산율, (변동금리) Libor + 가산율
기준금리_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가산율_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방법_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대출기간 1년의 경우 만기상환) 다만, 대출기간이 5년 이상 시, 2년 이내의 거치기간 가능

》채권보전

신용대출_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취급
담보대출_신용보증서, 부동산 등

》문의_한국수출입은행 본점(수입금융실) 및 지점 소재지

본점 전화번호_02-3779-6473, 지원 세부내용과 지점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_www.koreaexim.go.kr